

2013 세계 기상상황 및 곡물 수급 · 가격전망 세미나



한국사료협회와 우리선물이 공동으로 주최한 '2013 세계 기상상황 및 곡물 수급 · 가격전망 세미나'가 지난 4월 1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.

이날 세미나는 웨더마켓을 앞둔 곡물시장을 좌우하는 세계 기상전망 정보와 선물(先物) 전문가의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.

■ 주요 발표내용

□ 제1주제 : 이상기후와 장기예보

(발표자 : 기상청 기후예측과 박수희 사무관)

○ 2012년 주요 이상기후

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겨울철에 한파와 대설이 발생하였고 북미 지역에서는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발생하는 등 소우(小雨) 지역은 한발과 가뭄이, 다우(多雨)지역에서는 호우와 홍수가 빈발.

○ 이상기후 발생의 원인

- 북극의 이상고온으로 북반구 지역의 겨울철 한파 발생
- 라니냐로 인한 북미 지역 가뭄 발생



- 지구 온난화는 진행 중이며, 온실 기체가 증가하면 더 심화될 것이며 미래는 지금보다 더 건조해질 것임(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‘특별 보고서’(IPCC, 2012))

○ 이상기후 대응 : 장기예보의 활용

장기예보(11일 이상, 1/3개월 전망, 계절/연 전망)는 기후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기예보에 비해 정확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전 세계 기후예측센터의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술을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도를 높이고 있음.

□ 제2주제 : 2013 곡물수급 분석 및 가격전망

(발표자 : 우리선물(주) 해외상품팀 김성인 연구원)



○ 옥수수

- “Too Bearish” 했던 분기 재고 보고서 (평균 예상치를 무려 4억 부셸 가량 상회)
-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2분기 수요량
- 1분기 전례없던 감소폭을 보인 2분기 Feed/Residual Usage(88/8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)
- 2012/13년 수출 전망치, 향후 추가적으로 하향 수정될 가능성 농후
- 향후 4억 부셸 가량의 재고가 더해지고 신곡의 사상 최대 생산량 전망으로 본격적인 Weather Market으로 접어들기 전인 4월 말~5월 중순까지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전망

○ 대두

- “A bit Bearish” 했던 분기 재고 보고서(실제치 : 9억 9,900만 부셸 VS 예상치 : 9억 4,700만 부셸)
- 12/13년 수출 전망치,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(남미의 사상 최대 생산량+타이트한 수급을 감안할 때 적어도 6월까지 수출전망치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)
- 향후 타이트한 구곡의 공급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넓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

○ 소맥

- “A bit Bearish” 했던 분기 재고 보고서(실제치 : 12억 3,400만 부셸 VS 예상치 : 11억 6,700만 부셸)
- 안정적인 수급 추이 지속될 것(수급변수 : 최근 중국의 미산 소맥 구매가 향후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)
- 12/13년 4분기에도 안정적인 수급흐름 예상. 하지만 날씨 동향에 주목 ☞